

번호 III-13

제 목	국문	수가차등제 실시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급자 인식에 관한 조사			
	영문	A Study on Provider's Perception for the Case-specific Medical Price Differential System			
저 자 및 소 속	국문	정백근, 문옥륜, 윤태호, 이상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문	Baek Geun Jeong, Ok Ryun Moon, Tae Ho Yoon, Sang Gu Yi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V)	발 표 자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V)
	역 학() 환 경()		전 공 의(V)		포스터()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V) → 완료 예정 시기: 99년 10월

1.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1977년에 시작하여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그 이전보다 필요할 때 의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도가 급격하게 향상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의료 공급량의 급속한 증가와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복합되어 감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진료 기능이 급속하게 쇠퇴하였고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악화되었고 실제로 도산하는 병원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1,2,3차 의료기관간의 환자를 둘러싼 무한경쟁을 지양하고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안된 것이 '수가차등제'이다. '수가차등제'란 전국민의료보험 정책에 대해 일정한 수정을 가하는 것으로 각급 의료기관별 가산율과 본인부담금의 재조정이라는 방법으로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의 의료행태에 능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려는 정책적 수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수가차등제' 실시에 대한 공급자의 인식과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제도가 더욱 더 많은 공급자의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진은 현재 각 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치과 의사 중 1,737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의원급 1,110명, 2차의료기관 217명, 3차의료기관 410명에게 발송되었다.

본 설문지에서 설정한 인구학적 변수로는 성, 연령, 사회경제학적 변수로는 직종, 근무처, 전문과목, 지역 등을 사용했으며 이 밖에 의료보험 수가 수준에 대한 만족도, 의료보험제도 전반적 운영에 대한 만족도, 단순질환환자의 3차의료기관 집중현상에 대한 입장등도 함께 고려하였다. 그리고, 1,2,3차 각 단계에 해당되는 질병을 입원 질환, 외래 질환으로 나누어 가상적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의 질병들을 그 단계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공급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누어 현행 의료보험수가 대비 증감율에 대한 의견도 함께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각각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수가차등제 실시에 대한 입장을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수가차등제 실시에 대한 공급자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1,737명에게 보낸 설문지 중 28.1%인 489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438명(89.6%), 여자가 51명(10.4%)이었으며 이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세 미만이 179명(35.6%), 185명(37.9%), 125명(25.6%)이었다.

근무처별 분포를 보면 의원급 근무자가 226명(46.2%), 2차의료기관 근무자가 129명(26.3%), 3차의료기관 근무자가 134명(27.5%)이었으며 직업별 분포를 보면 의사가 429명(88.5%), 치과의사가 56명(11.1%)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54.5%가 서울 지역에 근무하고 있었고 45.5%는 지방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전문과목별 분포를 보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가 42%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과의 전문의는 58%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의 의료보험수가 수준, 의료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만족도에 관한 조사에서 각각 92%, 82%가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95.5%가 단순 질환 환자들이 3차의료기관으로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수가차등제 실시에 대한 공급자 의견에 대한 조사에서 72.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15.2%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수가차등제 실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수가차등제 실시에 대한 입장을 변수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 분석해보면 남성의 73.1%, 여성의 62.5%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반대하는 입장은 남성 14.4%, 여성 22.9%의 비율을 보였다.

근무처별로 분석해보면 3차의료기관의 69.8%, 2차의료기관의 67%, 의원의 76.5%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반대하는 입장은 3차의료기관 20.1%, 2차의료기관 15.7%, 의원 12%의 비율을 보였다.

연령구간별로 분석해보면 40세 이하의 70.3%, 40대의 74%, 50세 이상의 71.6%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반대하는 입장은 40세 이하 14%, 40대 12.4%, 50세 이상 21.1%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지역의 72%, 지방의 72.7%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반대하는 입장은 서울 지역 17.3%, 지방 12.7%의 비율을 보였다.

전문과목별로 분석해보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의 74.3%, 나머지 과의 전문의의 71.5%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반대하는 입장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의 10.3%, 나머지 과의 전문의의 18.1%의 비율을 보였다.

수가차등제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 요인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 현재 분석을 계속 중이다.

4. 고찰

수가차등제는 1.2.3차 의료기관간의 환자를 둘러싼 무한경쟁을 지양하고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적 통제에다가 재정적 통제 수단을 동시에 병행하려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므로, 수가차등제의 성공의 관건은 이 제도의 준수 여부에 따른 경제적인 Positive & Negative incentive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은 현재의 의료보험수가 수준, 의료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단순질환환자들의 3차의료기관 집중현상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수가차등제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적절한 incentive에 대한 제시가 수반되지 못할 때는 수가차등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데 있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